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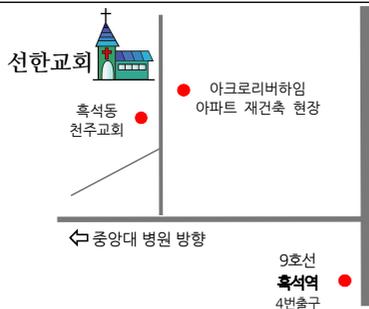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예배및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 리 아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전임전도사 김진만 전임전도사 권인혁 협력전도사 오효남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이금주 (M국)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응 (집사장) 김 대 희 박 희 태 조 윤 익 한 배 선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



암송구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2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75장 (통일찬송가 47장)
교 독 문	교독문 36번(시편 90편)
찬 양 과 경 배	182장 (통일찬송가 169장)
예 배 기 도	유신용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빌립보서 1:1~2
설 교	빌립보에 보내는 기쁨의 편지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신영문 신회강 안기연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아이 성 전투의 승리 (여호수아 8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시 간 및 장 소 안 내** 주일 1부 예배 : 오전 9시30분 /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시 (나사렛실)
 청소년부 예배: 오전 9시 50분 (벨엘실)
 수요일예배: 7시30분 / 금요일기도회: 8시30분
 새벽예배: 5시30분 (본당)
- 예 배 후 청 소** 예배후 부서별로 정리 및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준 비 안 내 및 경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도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분당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0/8	10/9	10/10	10/11	10/12	10/13	10/14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10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찬송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545장(통 344)

본문 : 룿기 1장 19~22절

말씀 : 최근 걱정했던 일들이 잘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힘든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와 룿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귀향에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귀향 소식은 온 성읍이 들썩일 만한 '빅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몰려나올수록 나오미의 수치심은 커졌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과연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희락)라 부르지 말고 '마라'(괴로움)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부요하고 행복했던 과거의 나오미는 죽고 이젠 쓰디쓴 인생을 사는 '마라' 인생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와 룿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 가십니다. 나오미와 룿이 돌아왔을 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나오미와 룿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오미와 룿의 굶주림을 해결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보리 추수의 시작점에 도착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먹이고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룿의 마라 인생 속에 숨어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주목하여 살피셨습니다. 때론 우리도 마라의 쓰디쓴 인생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숨어계신 듯한 느낌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주시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빌립보에 보내는 기쁨의 편지 (빌1:1-2)

서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1. 바울의 기쁨

(1) 기록 목적: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중(AD.61-63)

- ①자신에게 베푼 호의에 감사
- ②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여 염려하는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격려
- ③교회 분열 조짐에 교회 일치 촉구
- ④천국 시민자들 영적무장

(2) 빌립보교회의 시작:

- ①2차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인의 환상
- ②자주장사 루디아
- ③빌립보 감옥과 간수

본론

(3) 1절: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 기쁨의 관계

(4)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 기쁨의 근원

2. 교훈

- (1) 기쁨은 좋은 관계로부터 온다.
- (2) 기쁨은 바른 복음(진리)을 깨달았을 때 주어진다.
- (3) 기쁨은 주신 사명 속에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다.

결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여 소유하고 사는 진정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용 장로	조윤익 장로
헌 금 위 원	신영문 신희강 안기연	신영문 신희강 안기연
안 내	상도셀	분당셀

찬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통일 찬송가 488장)
통독	여호수아 6장
본문 내용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돈 뒤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여리고 성을 돈 지 7일째 되는 날, 백성이 성을 일곱 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일전에 두 정탐꾼을 도운 라합과 그의 가족은 약속대로 구원을 얻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생각해보기	
1	<p>여리고 점령과 라합가족 구원</p> <p>(1) 본장에서 11장까지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를 차례로 정복하는 과정</p> <p>(2)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경고한 성읍이지만 사람들이 납득할수 없는 방법으로 정복됨</p> <p>(3)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자.</p> <p>(4)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견고한 성도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p>
핵심 단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 앞의 문구에서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문구에서는 약속 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실로 여리고 성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의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한편, 성서 고고학적으로 파괴된 여리고 성읍에 대한 발굴 작업은 가스탕 교수 팀의 발굴 작업과 캐넌 여사 팀의 발굴 작업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비록 가스탕 교수가 파괴된 연대를 B.C. 1400년 경으로, 캐넌 여사가 B.C. 1500년 경으로 달리 추정하고는 있으나, 여하튼 여호수아 시대를 즈음하여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리고 성터에서는 여러 가지 집기류를 비롯하여 무너진 많은 건물 파편들 및 불에 타고 금이 간 많은 벽돌들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성의 몰락 원인도 지진 등으로 인한 큰 진동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이 모든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성경의 사건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해 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 인애하신 구세주여(279장/통 337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펀전 목사님에게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낙망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낙망해 본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에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네. 그때 이래로 나는 낙망을 모르고 살아왔어.”</p> <p>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비판을 하더라도, 조롱하며 비웃어도 우리는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핍박과 반대와 조롱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셨을 뿐 모든 비웃음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p> <p>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사례를 나누어 보세요.</p>
말씀 나누기	이사야 36:1~12
묵상포인트	앗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해 전한 조롱의 말들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때에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세상 힘을 붙들면, 도리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애매하게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철저히 낮아져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는 악한 말에 똑같이 악한 말로 맞서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며, 오직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자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만한 앗수르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참조, 37:36~38) 이스라엘에게 앗수르는 어떤 존재였나요?(참조, 10:5)
적용하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삶 속에서 내가 경계해야 할 오만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사탄의 시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거룩한 인격으로 저를 빚어 주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여호수아의 기도

날짜 : 10월 13일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통일 찬송가 493장)
통독	여호수아 10장
본문 내용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된 아모리 다섯 왕들은 기브온을 치고자 합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아모리 왕과 군대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던 날, 여호수아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도록 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생각해보기	
1	<p>가나안 남부 정복 완성</p> <p>(1) 기브온족이 이스라엘과 동맹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네 왕을 규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함</p> <p>(2) 기브온의 원군 요청과 이스라엘의 참전</p> <p>(3) 전쟁 중 해와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한 승리를 거둠</p> <p>(4)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 곁에서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항상 도우신다.</p>
핵심 단어	<p>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내리우시매 - 여기서 '큰 덩이 우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바님 게돌로트'는 단순히 '큰 돌들'이란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돌'은 문자 그대로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돌 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을 가리킨다. 이것은 여타 성경의 용례들을 보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한편 성경에서 우박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표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과 친히 싸우실 때 사용하신 전쟁 도구이기도 했다. 이럼 점에서 여기 기브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에 맞지 않고, 다섯 동맹국 군대만이 우박을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이 우박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초자연적 이적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결국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는 물론,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금번 기브온 전투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	--

매일 성경 강독

아이 성 전투의 패배 원인

날짜 : 10월 10일

찬양	믿는 사람 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1장/통일 찬송가 389장)
통독	여호수아 7장
본문 내용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이 아이 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이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일부 물건을 취해 감춰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알려 주시며 그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함께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아간이 뽑힙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지목된 아간은 더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백성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그의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이에 하나님의 분노가 멈춥니다.
생각해보기	
1	<p>아이성 정복 실패</p> <p>(1) 아이성은 그 규모나 전략적 측면에서 여리고성과 비교될수 없는 초라한 성</p> <p>(2) 자만에 빠져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패배하여 전 민족의 사가기 땅에 떨어짐</p> <p>(3) 패배의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 바친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착복한 아간의 범죄(하나님 백성 전체에 대하여 책임적인 '나'가 되어야 함)</p> <p>(4) 탐심을 물리치고(눅12:15) 매사에 겸손한 자세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p>
핵심 단어	<p>슬프도소이다...좋은뻔 하였나이다 - 이말은 마치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 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탄식(출 14:11, 12; 민 14:2, 3)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다.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의 원망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는 전혀 다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패역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아이 성 전투 패배 후 여호와와의 궤양에서 털어놓은 여호수아의 원망은 기도로써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하는 지도자의 고뇌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	--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통일 찬송가 205장)
통독	여호수아 8장
본문 내용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다시 아이 성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미리 매복하게 하고, 남은 백성을 이끌고 유인 작전을 펼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자신한 아이 왕은 성문을 열어 놓은 채 이스라엘의 뒤를 쫓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비어 버린 아이 성을 점령한 뒤 아이 왕을 뒤쫓고, 거짓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대도 돌이켜 아이 왕을 공격해 승리를 거둡니다. 아이 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에발 산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돌 판에 기록하고 그리스 산과 에발 산 앞에 백성을 세운 후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모두 낭독해 들려줍니다.
생각해보기	
1	아이성 정복과 율법 선포 (1) 아이성 전투 재개 명령 및 정복 (2) 에발 산에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 선포 의식 이행 (3)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4)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승리 후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함
핵심 단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18절은 이때가 후퇴하던 여호수아가 뒤돌아서 단창을 들고 아이 성을 가리키는 때임을 알게 해준다. 한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데, 만일 복병이 너무 빨리 공격하면 추격하던 아이 군대가 재빨리 되돌아 와서 성을 지킬 우려가 있어, 자칫 실수하면 오히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가 빠질 판이었다. 그런데 18-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최적의 시간을 일러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에 충실히 따름으로, 결국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나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와는 최고, 최상의 전쟁의 신이었던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찬송가 260장/통일 찬송가 194장)
통독	여호수아 9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은 가나안 여섯 족속은 힘을 합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계락을 세웁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속여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불과 3일 만에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기브온을 칠 수 없자 백성은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자신들의 종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생각해보기	
1	가나안 남부 정복 (1)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음 (2)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음 (3) 세상의 대적자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 (4)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만 의지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계략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핵심 단어	삼일이 지나서야...들으니라 -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사신들의 신분을 알게 된 때는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였다. 3일 뒤 알게 된 이유는 기브온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길갈)에서 걸어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일 것이다(17절). 다시 말해, 고대 국가간의 관습상 화친 조약을 맺은 국가는 상호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하는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3일 뒤에 그들을 방문한 결과 사신들의 신분을 알게 되었고,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는 분노심과 수치심으로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훨씬 이전,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이 히위 족속을 먼저 속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곧 여동생 '디나'가 당한 수욕을 보복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이들 집짓 할례를 이용하여 그들을 속인 후 무참히 살륙했던 일이 있었다(창 34:1-29). 이제 그 '디나 사건'이 있는지 근 500년 후에, 역으로 이스라엘이 히위 족속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다. 곧 뿌린 씨를 거둔 것이다(갈 6:7).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의 경륜상,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민이 진멸 중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디나 사건에 대한 배상인지도 모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